

# 인터넷 산업의 지역간 격차와 격차유발요인

## Regional Disparity of the Internet Industry and Its Determining Factors

이희연(건국대학교 지리학과, leehyn@konkuk.ac.kr.)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의 생산과 사업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시키는 요소로 등장하면서 디지털 경제 시대를 열러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디지털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산업의 성장에 따른 공간 분포패턴과 지역간 격차를 파악하고, 지역간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인터넷 산업의 시·도별 분포 패턴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점유율이 전국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인터넷 산업은 서울에 집중,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지원산업이나 활용산업과 같이 기술·사업혁신적이고, 지식집약적인 업종일수록 서울의 점유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화·특화되어 있다.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의 공간분포 패턴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다른 광역시들보다 경기도가 인터넷 산업 발달에서 비교우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인터넷 산업의 종사자 비율은 18.4%로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산업 종사자의 87.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셈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산업과 비인터넷 산업에서의 지역간 격차와 서울의 점유율을 절대적, 상대적 수준에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산업에서의 지역간 격차수준이 비인터넷 산업에서의 지역간 격차수준에 비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산업의 지역간 격차를 유발시키면서 서울의 비교우위성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요인 들로는 인터넷 사업체들과 연관·지원하고 있는 업체들의 집적, 고급 노동력 확보, 대기업 본사 등의 중추기능의 집중, 벤처캐피탈 업체의 집중, 정보통신기반시설의 확충 그리고 양호한 혁신 역량력 등으로 추출될 수 있었다. 즉,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숙련된 노동력과 혁신 역량력, 그리고 벤처캐피탈이 풍부하고 정보통신기반 시설이 양호하며 인터넷 산업의 주요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 대기업 및 공기업 본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의 지역환경이 인터넷 사업체를 유인하면서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